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5) 만수산 무량사

금북정맥이 보듬은 '만수무량'



◇만수산 무량사 경내,만수산 능선(배경사진)



◇사진 위로 부터 관목처럼 자란 느티나무,노랑상사화,무자치

만수산 무량사가 앉은 부여 외산면은 부여군내에서 가장 외지고 산이 많은 지역이다. 금북정맥이 내달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산을 에워싸고 있는 성태산, 만수산, 문봉산, 감봉산, 월명산, 월하산, 성주산 등이 모두 금북의 산들이다. 무량사는 그 산들이 보듬은 자리에 앉아있다.

외산 삼거리에 이르면 무량사에서 만수천이 내려온다. 만수천은 웅천천의 상류이다. 웅천천은 충남에서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천이다. 특히 감돌고기는 전 세계에서 이곳과 금강의 몇 군데 지천에서만 발견되는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어류다. 인근지역의 탄광들이 속속 폐광되면서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대 자취를 감춘 감돌고기는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절과 마을을 잇는 상생의 길 '만수천'

무량사까지는 만수천을 거슬러 2㎞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촌락들은 물길을 따라 형성되었다. 물길 따라 논밭이 펼쳐지고, 사람도 이 물길 따라 나다녔다. 물길은 단순한 물의 길(水路)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이 물길은 상계의 무량사와 하계의 마을을 이어주는 상생의 길이기도 하다. 무량사가 만수천을 살려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만수천 위에 무진암으로 건너가는 극락교가 걸려 있다. 만수천은 물빛이 검다. 폐광하수 때문이 아니라 바닥의 자갈과 돌이 시커먼 오석(烏石)이기 때문이다. 만수산을 비롯해 이웃한 보령 일대는 오석 산지이다. 능선 너머 성주사 터에 있는 낭혜화상의 탑비도 이 오석으로 세운 것이다.

검은 물 속에서 버들치와 피라미들이 노닐고 있다. 버들치는 산간사찰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1급수 어종이다. 이곳 사람들은 버들치를 '중태기' 또는 '중택이'라고 한다.

매월당 부도전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무진암은 비구니 절집이다. 무진암 뒷길로 만수산 산행로가 나있다. 산을 타는 이들은 이 골짜기를 부도골이라고 부른다. 부도골을 비롯해 만수산 일대는 다양한 여름나비들이 관찰된다.

다양한 여름나비, 활엽수 군락 형성



세줄나비, 왕세줄나비, 제일줄나비, 대만흰나비, 산제비나비, 홍점알락나비, 호랑나비, 네발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뱀눈그늘나비, 부전나비…그리고 다양한 나방들이다.

만수산은 굴참과 졸참을 비롯한 참나무류와 느티나무,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 세력이 막강하다. 급경사가 이따금 나타나는 산길을 30여분 오르면 만수산-문봉산-성태산을 잇는 길고 느린 능선을 만난다. 능선도 온통 참나무류로 뒤덮여 있다. 자연천이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소나무와 참나무의 싸움을 보면, 소나무는 바위가 많은 골산(骨山)에 강하고, 참나무류는 육산(肉山)에 강하다. 만수산은 바위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부드러운 육산이다.

만수산은 대산(大山), 한산(翰山), 홍산(鴻山) 등으로 불려지다가 조선시대에 선찰인 무량사가 미타사찰로 사격이 바뀌면서 만수산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일찍이 '만수무량(萬壽無量)'이라고 했다. 만수는 곧 극락의 다른 이름이니, 그 산에 무량수불인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청을 하지 않아 더욱 고색이 느껴지는 일주문을 지나 개울을 건너면 제법 그윽한 숲이다. 숲의 좌장은 참나무류와 늙은 소나무들이다. 그 주변으로 서어나무, 단풍나무, 왕버들, 층층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전나무 등이 협시보살로 서 있다. 그 숲 바닥에 맥문동 군락이 보라색 꽃을 피우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사람손이 아닌 저들 스스로 자생하여 저렇게 꽃융단을 이루었다니 더욱 대견스럽다.

천왕문에 이르면 무량사 경내가 그림 좋게 펼쳐진다. 자연과 인공이 한데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사물들이 제 자리에 앉아있다. 눈 맛이 편하고 즐겁다.

그림같은 경내 자연과 인공의 합집합

사찰 탐방하면 대개 인공 조형물만을 돌아보고 나오지만, 사찰에는 그런 인위적 조형물보다 더 오랜 세월로 존재해온 자연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찰은 주위의 자연과 함께 사찰이다. 사찰하면 이미 자연과의 합집합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사찰 주변의 자연은 단지 사찰의 조경적 가치만을 위한 부수적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 독립된 가치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후 진묵대사의 손길로 새로 다듬어진 무량사의 전각들은 천왕문-석등-오층석탑-극락전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무량사의 본전인 극락전은 중층 다락건물이다. 언젠가 조사에서 극락전 기둥의 재질이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밝혀졌다. 두 나무 모두 만수산 문도(門徒) 나무들이다. 절집은 제 산의 나무로 세워야 제격이다.

산신각의 매월당 초상화는 어딜 가고 가고 보이질 않는다. 매월당은 절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산에서 나는 나무로 악기(琴)를 만들어 그 산의 소리를 즐겼다고 한다. 만수산에 와서는 무슨 나무로 소리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잎이 져야 꽃이 되는 아름다움…

무량사의 여름을 장식하는 것은 역시 경내 곳곳에 무리지어 핀 노랑상사화이다. 상사화(相思花)는 수선화과에 속하는 구근식물로, 잎이 져야 꽃이 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랑상사화는 꽃이 작고 꽃대가 약해서 개상사화라고도 하지만, 청순미는 오히려 상사화 가운데 으뜸이다.

무량사의 산내 암자인 도솔암과 태조암은 연꽃 형국을 한 연화골에 자리하고 있다. 일주문께로 도로 내려와 만수천을 거슬러 10분과 30분 거리에 있다.

연화골로 가는 길가 산자락에 기름나물들이 군학(群鶴)처럼 자랐다. 햇볕을 많이 받아서 줄기 굵기가 모두 팔뚝만하다. 꽃자루가 우산살처럼 퍼진 꽃 무리를 산형화(傘形花)이라고 한다.

연화골 느티숲 개울에 몇몇 피서객들이 바지를 걷고 들어가 다슬기를 잡고 있다. 무자치 한 마리가 사람들의 물장구소리에 놀라 스멀거리며 어디론가 도망을 간다. 뱀은 동서를 막론하고 대개 부정적인 생명으로 많이 그려진다. 그러나 <화엄경> '세주묘품'에서는 화를 잘 내고 교만한 과거의 업보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존재로 나온다. <숫타니파타>에는 뱀이 허물 벗듯이 애착과 망상을 벗으라고 가르친다.

산내암자인 도솔암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비구니 스님의 암자이다. 싸리를 엮어 만든 사립문에 담쟁이가 넝쿨을 감았다. 토방에 앉아 물 한사발로 목을 축이고, 매미소리로 땀을 닦는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사찰(토굴)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50평
- 가액 : 8억2천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3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암자 안내
- 태백산 아래 제일 시원한 암자
- 산신각, 약사전, 용왕각, 지장전
- 별도로 되어있음
- 대지 83평
- 가액 : 답사후 결정

054)672-6872
011)368-7653
011)9780-5515

토굴 안내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근교
- 건평 : 지상 25평
- 산세수려함
- 최고의 약수물 나옴
- 가액 : 3천5백만원

054)672-6872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서산시 가야산(해미IC 5분)
- 산세 수려. 전망 좋음
- 부지 1500평중 600평 사찰허가 토목공사 완료. 조경, 전기, 자연수, 자연석 큰돌 많음
- 가액 : 2억원

017)341-9967
017)341-6969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마암면
- 건물 : 25평.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주방, 샤워장 완비
-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 가액 : 상담후 절충

055)672-9399
017)233-77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1리 390번지
- 절터 250평, 밭 700평, 임야 5000평
- 가액 : 6천만원

055)366-1619
안내 054)833-4789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가평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임)
- 요사 : 49평
- 가액 : 2억5천만원
- 산세좋고 교통편리

- 위치 : 공주
- 부지 : 1만8천평
- 법당 : 20평(임)
- 요사 : 20평
- 가액 : 2억원
- 진입로 노송 울창

※ "급" 구함
- 위치 : 서울 및 근교
- 가액 : 4억~10억 가량
의토굴 및 사찰 전화상담 환영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서 울 ☎ 02)722-8968
대 구 ☎ 053)782-5504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명상수련원 적지
- 시내 10분, 금호강앞, 농사가능
- 대지 : 1400평
- 가격: 보신후 절충, 전세도가능
- 법당 : 30평, 방3칸, 공양간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 가능)

011)430-0655
011)718-3524

사찰 안내
- 위치 : 중구신당동 대로변역 1분
- 중앙시장입구 요지
- 3층중 3층.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포교에 따른 비법 전수
02)2235-2219
011)9150-228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동호동 남방산 부근
- 평수 : 85평
- 가액 : 2억원(절충 가능)

055)645-32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600평
- 가액 : 6억원

011)9851-7263

사찰안내
- 위 치 : 청송보현산
- 부 지 : 1,9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2억
※계곡과 산세좋은 암자

- 위 치 : 함안
- 부 지 : 33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
- 가 액 : 2억8천
※ 유명관광지 옆 도량

- 위 치 : 부산
- 부 지 : 93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2억5천
※ 주택지 도심 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인근(섬)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한옥기와)
- 요사채 : 17평
- 가액 : 1억8천만원

※ 불심 깊은 곳(운영 잘됨)
011)9677-2724

사찰(급)안내
- 60평
- 시내 한복판. 시장 입구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목동사거리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5-2445
011)9947-4458

임야 안내
-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산수가 수려함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하고 국도 1호선 4차선 도로에서 500m지점 호남고속도로 옆
- 면적 : 25,195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종중납골당, 가족묘지, 사회복지법인, 실버타운, 정신요양병원, 연수원으로 적합
- 특징 : ① 계곡이 흐름 ② 전설에 나오는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 ③ 전면에 저수지가 있음 ④ 정남향
- 가액 : 평당 11,000원

011)647-3500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